

1 일  
3월 6일(수)



성경구절

로마서 9:3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겨레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새번역)

“우리 민족, 겨레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한반도는 아직도 눈물과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울과 모세가 그들의 민족과 겨레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이 겨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오니 갈라진 민족을 하나되게 하시고 갈라진 조국에 평화를 심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 참으로 큰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쁨을 로마서 8 장 35 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로마서 8:35) 그런데 그는 기쁨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로마서 9:1). 어떤 근심과 고통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로마서 9 장 3 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근심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겨레를 위하는 일이며,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새번역) 바울의 동족이며 그의 친척인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가 근심이 있고 고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 겨레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 질지라고 민족을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자신의 민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은 사도 바울 뿐 아니라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출애굽기 32 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부터 증거판들을 받고 내려 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에 절하고 경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 범죄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주옵소서.”(출 32:31-32) 자신의 민족과 조국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자신의 이름을 주의 책에서 빼더라도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조국의 아픔에 사도 바울과 모세는 모른척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민족의 역사를 바로 잡고 싶었습니다.

전쟁과 분단으로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고 아직까지도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우리의 조국에 평화의 햇살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위원회는 이번 사순절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묵상 자료를 통해 우리의 겨레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모세가 자신의 민족과 조국을 위해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눈물을 닦기 위해, 우리 조국의 분단을 끝내기 위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평화와 통일을 위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 일  
3 월 7 일(목)



성경말씀

마 5:23-24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개역 개정)

“하나님은 통일을 원하실까요?”



오늘을 위한 기도

주님, 기대가 높았던 만큼 북-미 정상 회담에 대한 낙심도 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끈기있게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남과 북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그냥 오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걱정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지난 1990년대 북은 '고난의 행군'을 했고 남에 사는 우리는 너무 무거운 통일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불편한 통일 대신 지금 이대로 편한 분단'을 선택하겠다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통일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인의 몫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통일을 원하시는가?' 물어야 합니다. 임성빈 교수는 '신앙과 통일 준비'에서 하나님은 통일을 원하시는가? 묻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통일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매, 형제끼리 불화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며, 화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의 화목이 우선임을 분명히 하셨다(마 5:23-24).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은 이우야 어찌되었건 서로 피를 흘리면서까지 반목하며 살아왔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제 우리는 서로 화해하여야 한다. 우리가 서로 용서함에 바탕을 두고 화해하여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화해의 통일을 원하십니다. (임성빈, 신앙인과 통일준비)

지난 2월 27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은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온 세제가 놀람과 충격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놀란 마음은 차츰 진정되었습니다. 사실 분단 이후 남과 북의 관계를 돌아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기대와 실망,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시소게임 같았습니다. 그리고 북과 미국이 만나 대화한 것 그리고 서로의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이해한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때 유리함이나 불리함을 따지기 보다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화 통일을 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주변 조건과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 하지 않고 신앙의 힘으로 통일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3 일  
3 월 8 일(금)



성경말씀

에베소서 2 장 14 절 - 22 절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쳐서 원수 된 것을 없애시고”

“경계를 넘어 평화를  
이룹시다”



오늘을 위한 기도

성전은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들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1871 년에 발견된 라틴어 비문에, 이방 사람들이 성전 내의 경계선을 넘으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써 있을 정도로 이 경계는 철저하고 완강합니다. “우리”와 “당신들” 로 나뉘어진 무리는 만나거나 섞일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평화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으로 그 담을 허무셨다고 말해 줍니다. 원수 된 것을 없애셨고, ‘우리’ 와 ‘너희’ 로 나뉜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말은 “하나님께 계신 우리의 아버지” 입니다. 하늘은 하나이기예, 누구도 거기에 금을 긋고 경계를 지어 나의 하늘과 당신의 하늘을 구분지을 수 없기에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적절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이 땅을 하늘처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신학자 C.S. Song 의 말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경계를 가로지르는 일” Crossing the Boarder 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던 지난 4 월을 기억합니다. 철저하고 완강하게만 보였던 담을, 두 지도자는 마치 아이들 줄넘기 놀이를 하듯 수월히 넘었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에 금방이라도 큰 일이 성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짐이 길었던 만큼 하나가 되는 일에는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조국에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기 원합니다. 담을 허물과 원수된 것을 없애고 화해하여 한 몸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까운 곳과 먼곳의 사람들에게 모두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냉전의 마지막 잔재인 한반도에 평화가 임한다면 세상의 많은 민족이 화해하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먼곳까지 평화가 전해 질 것입니다. 성령안에 우리 모두는 외국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한 가족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 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은혜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소서. 교회를 당신의 참된 몸 되게 하사, ‘우리’ 와 ‘너희’ 를 구분하는 높고 두꺼운 담을 허물게 하소서. 한반도에 허락하실 화해와 통일의 역사를 통해 멀고 가까운 나라들이 평화의 길을 배우게 하소서.

4 일  
3 월 9 일(토)



성경말씀

전도서 3:1, 8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 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제는 평화 할 때입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3 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 장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뿐 아니라 우리가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역사, 그리고 한 나라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건과 사건들이 모이고 그 사건들속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삶이 모여 한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조국인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만년의 무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많은 위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아직도 눈물 마르지 않은 역사는 바로 “분단”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난 한해, 남과 북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분단 이래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으로 왔고 남한의 대통령이 평양시민들 앞에서 평화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난 9월 평양을 방문한 남한의 대통령은 5.1 경기장에서 “우리는 5000 년을 함께 살고 70 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라고 연설했습니다. 5000 년의 역사 속에서 70 년은 너무나 보잘 것 없이 짧은 시간입니다. 5000 년간 한민족이었는데 말이 같고 생각이 같고 생활 습관이 같았던 가족이었는데, 70 년의 시간이 우리를 너무도 많이 변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통일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향한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꿈과 희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 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화해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분단으로 가족들과 헤어진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평화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평화의 왕(Prince of Peace)”(이사야 9:6)으로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 아침에 이 세상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이 사순절 아침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5000 년을 함께 살았지만 짧디 짧은 70 년의 헤어짐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변했고 너무나 많이 아파했습니다. 주님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셔서 “이제는 평화할 때라!”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따르는 우리들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맘속에 평화의 꿈을 통일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일  
3 월 11 일(월)



성경말씀

누가복음 6: 27-28, 31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며 한 민족입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많이 들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마음과 몸으로는 행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려울 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점에서도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1990 년에 있었던 독일의 통일과, 예멘의 통일로 한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습니다. 70 년이라는 시간 동안 38 선을 경계로 서로 비방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어떤 이들은 눈물 흘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눈물들이 모여 미움이 되었고 미움들이 모여 분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민족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생활 습관을 가진 이들이었지만 70 년의 시간은 우리를 갈라놓았고 우리를 서로 원수 되게 하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보았던 “똥이장군”이라는 만화영화를 기억합니다. 그 만화에 보면 모든 북한 사람들은 늑대로 표현되고 북한의 지도자는 돼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한동안 북한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늑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었지요.

저는 2008 년 남북평화통일 평양기도회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남과 북의 기독교인들이 평양 봉수교회에서 만나 남과 북이 각각 준비한 포도주와 빵을 섞어 함께 성만찬을 나누었던 일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남과 북의 기독교인들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같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에게는 이미 통일을 경험한 것보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이상 그들은 적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며,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순절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험뜯고 비방하며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며 축복하고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우리는 오랜 시간 서로를 원수라 여기며 사랑하기 보다는 서로를 험뜯고 저주하며 비방하였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원수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며, 한 민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제자인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을 일구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6 일  
3 월 12 일(화)



성경말씀

마태복음 5:21-24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관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열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러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화해가 먼저입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주님, 오늘 저는 “너는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화해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창세기는 형제간의 갈등과 화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덴 이후에 태어난 첫 사람 가인은 형제 살해자가 되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적자와 서자 사이의 갈등 때문에, 야곱과 에서는 장자권을 둘러싼 경쟁으로, 요셉과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고 갈등했고 원수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갈등 이야기만 전하지 않고 화해 이야기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장례를 함께 치르며 화해했고, 에서와 야곱도 브니엘에서 서로 부둥켜안고 울면서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과 형제들도 수 많은 인생의 시련을 거치면서 오랜 갈등을 끝내고 서로를 용납했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9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과 북은 아직도 싸운 후 화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갈등 중에 있습니다. 군사대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혹 화해를 위한 노력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분단의 긴 역사와 비교할 때 잠깐 숨을 쉬는 정도라고나 할까요?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로 1961년부터 2010년 8월까지 국군, 북한군, 미군 1554명이 사망하였습니다.(경향신문 2010년 11월 17일)

남과 북이 오랜 갈등을 끝내고 화해하고 서로 용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화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핵심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형제나 자매를 보고 성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열간이라고 말하는 사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23-24)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와 화해를 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참된 제사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새겨야 합니다. 형제 자매와 불화한 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방해합니다. 형제 자매와 화해를 한 후라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이제 화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불화’의 세상을 ‘화’의 세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거룩한 소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소명입니다. 우리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7 일  
3 월 13 일(수)



성경말씀

이사야 2 장 4 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드소서.”



오늘을 위한 기도

이사야가 계시로 받은 말씀입니다. 현실을 살펴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목전에 들이닥친 앗시리아의 위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든 우상을 놓지 못하고,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잇속만 생각하는 시절입니다. 이런 날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환상을 허락하십니다.

이 고난의 시기가 지나면 주님의 성전이 높이 솟을 것이고, 사람들은 저마다 그 성전에 올라 주님의 길을 배우고 따를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드러난 주님의 길은 화해와 평화의 길입니다.

그 날이 되면 더 큰 칼과 더 강한 창을 허락하실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할 것이니 너희들은 마음껏 정복하고 빼앗아도 좋다고 약속하지도 않으십니다.

높이 솟은 성전에서 배우고 따르는 주님의 길은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평화도 아닙니다. 칼은 보습이 되고, 창은 낫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이 가고 그 날이 오면 나라와 나라의 분쟁이 사라지고, 그러면 힘센 나라들의 분쟁 때문에 어느 민족이 고난을 겪는 일도 사라질 것입니다. 죽이고 위협하는데 쓰이는 쇠붙이들은 농사하고 먹여 살리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기나긴 분단의 세월, 여전히 요원한 평화이지만, 하나님이 드러내신 마음 뜻은 평화이고 화해입니다. 민족들의 복잡한 이해 관계 속에 아직 아슬한 평화의 빛이지만, 이사야의 말씀은 ‘오너라,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하며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 영혼과 교회, 지역 공동체와 민족들 가운데 성령의 불을 기다립니다. 그 불길은 총과 미사일을 녹여 보습과 쟁기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미워하고 죽이지 않고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강원도 화천에 가면 세계 60 개 분쟁지역에서 거두어 모은 탄피 1 만관 (37.5 톤)으로 만든 평화의 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다보니, 그 종 한번 크게 울려보고 싶습니다.

주여, 거룩한 성전에서 가르치신, 평화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안의 분쟁을 해결하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소서. 군사 훈련이 필요 없는 세상이 속히 오게 하소서. 칼과 창을 만들던 노력과 자원을, 생명과 평화를 전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소서. 우리로 그 희망과 소원을 잃지 않게 하소서

8 일  
3 월 14 일(목)



성경말씀

사도행전 10 장 9-16, 23-29 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행  
10:28 절)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을 위한 기도

우리 속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거두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십시오. 모든 경계를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남과 북의 오래되고 낡은 경계들을 넘어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도록 저희를 이끄소서. 아멘.

모니카 마시아스라는 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적도 기니라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서 대통령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쿠데타의 위험을 피해서 세 자녀를 당시 친분이 있던 김일성 주석에게 보냈습니다. 7 살이던 1978 년 평양으로 온 그녀는 아버지가 암살 됐다는 소식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북한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20 대까지 평양에서 살게 되고 이후 30 대에는 한국에서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양과 서울 억양이 섞인 우리 말을 사용합니다.

두 나라를 다 살아본 모니카에게 남한과 북한은 ‘체제는 달라도 같은 나라’ 였습니다. 중국 사람과 북한 사람은 같아 보여도 사고 방식이 다른 반면 북한과 한국은 사고 방식, 성격, 음식, 도시의 냄새까지 모두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도 북한에 있을 때는 남한과 미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후에 그 편견을 깬다. 한국에 왔을 때 마주 오던 승용차가 신호도 주지 않고 그냥 들어오니까 버스 기사 아저씨가 “야 이놈, 이 새끼야!” 하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욕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니카는 남북이 이렇게 공통점이 많은데 서로를 너무 모르는 가운데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보자기 속에 있는 온갖 짐승들과 새들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듣지만 속되고 부정한 것은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버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후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 사람들과 만난 베드로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이 하던 것이 불법이던 시절,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속되고 부정하다는 생각은 만나고 나서야 허물어 집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니 저들도 나와 같은 사람임을 깨닫습니다(행 10:26). 남과 북은 얼마나 서로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사로 잡혀 있을까요? 그래서 우선 자주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자주 만나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경계를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신앙이 우리가 쳐놓은 울타리들을 허물고 넓히는 과정이라면 남과 북은 지금 우리가 허물어야 할 가장 큰 울타리일지도 모릅니다.

9 일  
3 월 15 일(금)



성경말씀

사도행전 1:6-8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오늘을 위한 기도

세계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에서 사는 우리는 정작 통일의 문제를 방관자 처럼 보았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하듯 우리도 통일의 전도자가 되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후 사십 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행 1:3]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아마 한 여름 소나기 퍼붓듯 제자들은 질문을 예수님께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단 한개의 질문을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행 1:6]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제자들 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시리아에 멸망당하고, 주전 587년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당한 이후 페르시아와 그리스에게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주전 63년 부터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또 자기들이 멸시하던 예돔 족속을 왕으로 모시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그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입니까?라고 제자들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질문에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남과 북의 통일에 관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질문과 관련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글 '평화의 길 통일의 문'의 일부를 옮겨옵니다.

통일은 언제 됩니까?는 통일문제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무심코 던지는 이 질문 중에는 우리 스스로를 통일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미혼의 청년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저 언제 결혼하나요?'라고 묻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이 내 선택의 결과로 이뤄지며 통일 역시 그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투영해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조한범, 평화의 길 통일의 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겨 두라 하였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예수님의 뜻은 매우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복음의 증인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와 많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라는 암시가 거기 있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는 뜻도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통일이 언제 됩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생각해봅시다. 통일,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통일을 이뤄가는 것은 분단된 나라에 사는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듯 통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된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10 일  
3 월 16 일(토)



성경말씀

이사야 43:18~19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평화와 통일의 길을 내소서”



오늘을 위한 기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조국이 갈라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라진 땅에 화해의 새로운 길을 내게 하시고 매마른 땅에 평화와 통일의 물줄기가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앗수리아 살만 에셀 3 세에 의해 멸망하였으며 남 유다는 바벨론의 느브갓네살 왕에 의해 몰락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 깊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43:18-19의 말씀은, 이러한 역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세지 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절망과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족 또한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참으로 비극적이고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조국의 분단으로 가족과 헤어져야 했으며, 서로 총을 겨누고 서로의 원수가 되어 서로를 적대시 하며 서로의 몸과 가슴에 생채기 내며 70년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 서로 왕래하지 않던 비무장지대에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군사도로가 생겼고 서로 포탄을 주고 받던 바다에 새로운 물길이 생겼습니다.

수치와 고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내버려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의 고난과 슬픔에 눈감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서로를 생채기 내던 광야에 길을 내시고 메말랐던 사막에 강을 만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제자인 우리를 통해 평화의 길, 통일의 길을 이 땅에 놓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의 조국의 통일 위해 기도하는 사순절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 일  
3 월 18 일(월)



성경말씀

요한 1 서 4:7-10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한 1 서 4:7-8)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사랑과 포용하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늘 실패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게 하옵소서. 나와 다르다고 다른 이를 판단하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어울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 장 7 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마다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 동안 같은 민족이요 형제자매인 남과 북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조차 분열과 갈등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전쟁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하루 속히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며 ...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한 상호간에 신뢰회복이 확인되며 한반도 전역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었을 때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며 주한 유엔군 사령부도 해체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진영을 수호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이 반공이다. 반공이 없으면 적화통일이 되고 그 결과는 자유세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 이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즐기치게 외쳐온 북한의 입장을 수호한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두 글은 어떤 정당이 발표한 성명서가 아닙니다. 1988 년 한국기독교협의회(NCCK)에서 발표한 ‘88 선언(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선언)’과 그에 대한 보수 기독교계의 반박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의 진보진영은 북한과의 대화에 힘썼고, 보수진영은 북한에 교회 세우기 모금 및 평양과학기술대 설립 등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로를 향해서는 대화를 꺼렸습니다. 보수적 교인들은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켜 정권을 무너뜨려야 기독교 정신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진보적 교인들은 북한 사회와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공존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남남 갈등’을 먼저 해소하고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모두 진보나 보수나 용서, 화해, 이웃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가에 있습니다.

남과 북의 통일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직장 안에서 이웃들 관계에서 늘 존재하는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안에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함!’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요한 1 서 4:12)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차이와 다름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 일  
3 월 19 일(화)



성경말씀

마태복음 5: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이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분쟁을 끝내며, 분단을 평화로 일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미움이 있는 이 땅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우리 조국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한반도에 일치를 심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있는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며 아끼셨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셔서 그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5: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의 말씀은 팔복 중 일곱 번째의 말씀입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shalom)”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분쟁, 전쟁, 혹은 역경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히 다른 이와 싸우지 않고 서로 무관심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귀어 있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 즉 이 세상에 “샬롬”을 전하는 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샬롬”의 의미를 살펴본 것과 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히 다른 이와 싸우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상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고, 갈라졌던 이들을 하나로 묶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도록 평화를 일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며, 이 세상에 평화를 일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며, 평화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땅에 아직도 분단과 분쟁이 있고, 한 형제 자매였지만 서로를 비방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분단을 평화로 만드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이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이들입니다.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3 일  
3 월 20 일(수)



성경말씀

마가복음 1:23-27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키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키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통일은 치유입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주님,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너무 깊고 깊었습니다. 그렇기에 통일을 향해 가는 한걸음 한걸음이 치유의 과정이 되게 하소서. 분단이라는 상처를 딛고 일어난 한민족이 다시 세계 민족의 번영에 기여하는 평화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일행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 되자 예수님은 회당 가서서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거기에는 더러운 키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소리를 질렀습니다.”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해 가버나움 회당 안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더러운 키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오래 거기 있었는지 모르지만 누구도 이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다. 회당 밖으로 내보내지도, 소리를 질러도 누구 하나 '조용히 하라' 나서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더러운 키신에 들렸고 가족들과 온 동네 사람들은 골치를 썩었을 것 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전우택 교수는 분단과 6.25 로 인한 상처를 사회적 트라우마로 진단했습니다. 그 결과 민족(民族)공동체, '공간(空間)공동체' '이성(理性)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없이, 극단적 이념주의에 집착하여 갈등 해결 능력도 없이 살아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우택 교수는 분단을 새로운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즉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고 붕괴 이전보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민족은 인류의 정신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게 되었다면서 그러기에 “통일은 치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우택, 통일은 치유다 : 분단과 통일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다시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키신을 꾸짖으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키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더러운 키신에 들린 사람만이 아니라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개인의 치유이자 회당 공동체의 치유입니다. 더러운 키신 때문에 받았던 상처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해방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영토의 통합과 분단의 해결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이 수십년 동안 지고 살았던 '분단이라는 더러운 키신'에서 풀려나는 치유입니다. 휴전선이 거둬지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낙인이 사라지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 한민족이 거듭날 수 있기를 두 손 모으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14 일  
3 월 21 일(목)



성경말씀

에베소서 2:14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공동번역)

“막힌 담을 허무소서.”



오늘을 위한 기도

평화의 주님! 우리는 스스로 담을 쌓고 서로의 같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서로의 다름만을 바라보며 서로를 증오하고 비방하며 원수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안에 쌓은 담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고, 한 민족, 한 겨레로써 서로 화해하며 평화를 전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일꾼으로 우리는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에베소 교회는 온전히 하나된 공동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고 더 나아가 서로 원수가 되어 담을 쌓고 서로 왕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 서로 담을 쌓고 원수 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한 형제 자매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27일 남과 북의 정상들은 70년간 남과 북을 갈라놓았던 분단을 벽을 허물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두 정상 이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은 7천만 겨레 뿐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한 역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70년간 38선이라는 선을 사이에 두고 총을 겨누고 담을 쌓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원수로 살아 왔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다름만 바라보고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원수가 되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도 한 핏줄, 한 언어, 그리고 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원수가 되어 서로를 비방하고 증오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분열을 바라보았던 바울의 마음을 참으로 아팠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바라보고 그들이 쌓아놓았던 담을 허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평화를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임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상기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남과 북의 분단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서로 총을 겨누고 서로 원수가 된 남과 북을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마도 분열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던 바울의 마음보다도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한반도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라도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평화를 심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담을 허무는 평화의 일꾼이 되기를 권면했던 것 같이, 또한 우리를 남과 북을 화해하기 위한 평화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땅에 평화의 훈풍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15 일  
3 월 22 일(금)



성경말씀

창세기 33:1-4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서로 만나는 것이 화해의 출발점입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주님! 남과 북,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자주 만나고 얼굴을 마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산가족들이 자주 상봉, 서신 왕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에 나타나는 쌍둥이 형제, 원수가 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만나는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동생 야곱은 늙은 아버지로부터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교묘하게 속여 가로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 형제들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형을 피하여 외삼촌이 거주하는 멀고도 먼 밧단아람이란 곳으로 도망쳤습니다.(창세기 27 장)

야곱은 그곳에서 14 여년을 살면서 결혼하여 두 아내와 많은 자녀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향이 그리워 결국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압복강을 건넌을 때 400 여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는 형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겁이 나고 두려워서 당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때 형 에서가 달려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동생 야곱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두려움에 쌓여있던 야곱은 자신을 감싸준 에서를 향해 말하기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옵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창세기 33 장)

한국전쟁 이후 수십년 동안 헤어져 원수처럼 살았던 이들이 있습니다. 2000 년 제 2 차 이산가족 북측 방문단 가운데는 6.25 때 `의용군`으로 참전하면서 헤어진 후 반세기만에 고향을 찾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의용군으로 참전, 북한군으로 `혁명전공`을 세운 인물들 중에 신현문씨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충남 대덕이 고향으로 6.25 전쟁 당시 의용군으로 입대해 공로를 인정받았던 신현문(69)씨는 국군 장교로 입대하 큰형과 충부리를 맞대야만 했었습니다.

한편 평양을 찾은 남측의 이산가족 방문단 가운데는 늦어도 3 개월 뒤면 북진해서 고향에 다시 올 수 있다는 생각에 1.4 후퇴 때 아내와 자식을 남겨두고 단신으로 남하한 후 국군에 입대, 서부전선 전투에 참가했던 조순표(76)씨도 있었습니다.

이날 이산가족 상봉에서는 그동안 쌓였던 분단의 아픔이 담긴 눈물을 한없이 쏟아내었습니다. (연합 2000/12/01 자 요약)

서로 화해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화해는 다시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해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화해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산 가족들 뿐 아니라 남과 북의 자매형제들이 자주 얼굴을 보아야 하는 이슈입니다.

형 에서의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마음, 따듯하게 환대하는 마음, 넓디넓은 너그러운 마음을 본 동생 야곱은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다고 한 것입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들이, 이산가족들이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서로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6 일  
3 월 23 일(토)



성경말씀

로마서 14:19

“우리는 평화를 도모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을  
추구합시다.”(공동번역)

“서로를 복돋으며  
평화를 이룹시다.”



오늘을 위한 기도

주님! 우리는 서로 우리 안의 같음을 보지 못하고 서로 다름 만을 바라보며 갈등하고 분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돌이켜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분열을 내려 놓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복돋으며 평화의 징검다리를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리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다른 서신과 달리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서신으로 꼽힙니다. 로마서는 신앙공동체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 속에서 로마서 14 장을 그 당시의 신앙공동체 안에 있는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갈등과 분열은 요인은 안식일과 음식의 문제 였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과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 그들의 정체성(Identity)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문제 끼리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안식일 문제와 음식 문제에 있어서 양보라도 하는 경우에는 공동체 안에서 찍혀 완전히 왕따를 당하거나 혹은 더이상은 그들의 일원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의 갈등 뿐 아니라 그들 공동체 안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 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로 서로 갈등하며 분열하며 벽을 만들고 있는 초대 기독교 공동체 들에게 평화를 도모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을 추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각 공동체에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들이지만 서로를 핑계고 생채기 내는 소모적인 논쟁과 분열을 멈추고 서로를 복돋으며 평화를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이 땅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남과 북의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남과 북을 가르는 이데올로기로 한반도는 분단되었고 지난 70 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혈투고 비방하며 조금도 함께 할 수 없는 원수로 생각 하며 살았습니다. 남북 갈등 뿐 아니라 남북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2000 년이 흐른 이때에 한반도를 바라본다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게 권면 했듯이 이 땅의 크리스천들에게 “평화를 도모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을 추구합시다”라고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이후 한반도에는 평화의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평화와 통일을 향한 작은 시작일지 모르지만 통일과 평화를 위한 우리 하나 하나의 소망과 기도를 모은다면 이 땅에 통일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사도 바울이 권면 했던 것 같이, 남과 북이 서로를 복돋으며 또한 인정하며, 평화를 위해 한 발 한 발 내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17 일  
3 월 25 일(월)



성경말씀

사무엘상 24:16-19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용서가 더 크다”



오늘을 위한 기도

고대 이스라엘은 두 번 분열되었습니다. 첫 분열은 다윗에 의해 통일되었으나, 그 뒤 기원전 930년경 분열된 유다와 이스라엘은 갈등으로 민족 역량을 소진시키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차 분열을 극복한 주인공은 다윗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보여준 용서의 정신입니다.

꼴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쓰러뜨린 다윗은, 하루 아침에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다윗은 사울을 피해 산악과 광야를 헤매며 동굴을 처소로 삼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3 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했을 때입니다. 그가 혼자 다윗이 머무는 동굴에 들어오자 다윗의 측근들은 이때야말로 복수할 기회라고 충동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뒤에 다윗의 관용을 알게 된 사울은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고 고백합니다.

사울이 다시 3 천 군대를 끌고 다윗을 체포하려 나섰습니다. 어느 날 밤, 다윗과 수행원은 사울 일행이 잠든 틈을 타 그들의 야영지를 기습하여 복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머리맡에 둔 창과 물병만 갖고 나오고 왕의 생명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보복 대신 용서와 관용으로 그를 일깨웠습니다. 남북이 화해할 때 배워야 할 용서의 정신입니다.

이해동 목사(평화박물관 이사장, 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장)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6·25 전쟁이 났을 때 아버지는 전국 청년조직인 대동청년단 해남군 지부 부단장이었고, 어머니는 대한부인회 황산면 지부 회장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좌익 편에서 보면 눈엣가시였습니다. 서울 수복 이후 인민군이 빠져나갔고 우리가 살던 곳은 또 한 번 진공상태가 됐습니다. 좌익 사람들이 우익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잡혀가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질 무렵 아버지께서 사살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총알이 아버지의 왼쪽 등에서 비스듬히 왼쪽 겨드랑 밑으로 관통했고, 칼은 오른쪽 등을 정면으로 관통했습니다. 뜻밖에 아버지는 살아계셨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오랫동안 좌익세력에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우리 가족이 겪은 악몽 같은 상처를 정반대편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민족적 차원의 화해를 이뤄야 합니다. 이 길만이 민족의 비극을 극복하고 분단 현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국민일보 2017-08-07)

전쟁 중에 한반도에 사는 우리는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좌우 분열 속에 당한 만큼 서로 보복했습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를 잃은 이들에게 어느 누구도 감히 용서하라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사자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 드릴 뿐입니다. 형제들 간에 ‘용서’는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폭력과 보복’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에게 용서하고 관용의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도 시기하고 미움을 풀지 못하고 복수의 마음을 품고 삽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 역시 다윗처럼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 일  
3 월 26 일(화)



성경말씀

마태복음 8 장 28-34 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 8:34)

“사람이 먼저입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마태복음 8 장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나병환자, 로마군 장교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릴리 호수의 끄찍한 폭풍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땅이라 불리운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하루였는지 24 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도 곤히 주무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겹게 찾아간 가다라 마을에서 예수님은 키신이 들려 무덤에서 사는 두 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격리된 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다라 마을 사람들은 키신 들린 사람보다 돼지 떼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돼지는 그들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의 신약 교수님은 가다라 지방 사람들에게 돼지가 어떤 의미였는지 인상깊게 알려 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돼지는 그들에게 중요한 음식이고 수입의 원천이었습니다. 고대 히브리 율법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금지했지만, 그들은 당장의 먹을 것을 위해, 그리고 그 돼지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 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돼지는 농산물의 축복을 기원하는 종교 의식에서 중요한 제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진 것이 아니라, 가나안 지방에서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라 알려진 바알을 위한 예식에 그들의 돼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돼지는 가다라 마을이 속한 데가볼리 지역(오늘날의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심볼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 군대는 권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세상적인 힘과 권력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가다라 마을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키신 들린 두 사람을 마을에서 추방시켰지만, 사실은 그들 역시 경제적인 이윤과 종교적인 우상숭배와 군사적인 힘에 의지하던 키신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가다라 마을은 도시 전체가 키신 들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떼를 죽이면서까지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킨 예수님을 그들은 마을에서 떠나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저마다의 계산적인 셈법으로만 한반도를 대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산 가족들은 어서 빨리 만나야 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인적 교류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 그곳에 있는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는 것부터 진정한 한반도의 통일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사람을 창조하신 주님. 저마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이 사람의 가치보다 우선하지 않게 하소서. 특별히 하염없이 기다림에 지쳐 있는 이산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조건 없는 지속 가능한 만남들이 속히 오도록 인도 하소서. 아멘.

19 일  
3 월 27 일(수)



성경말씀

아모스 7 장 10-17 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공고하지 말라...” (암 7:16)

“참 예언자 VS 거짓 예언자”



오늘을 위한 기도

**예**언자 또는 선지자를 가리키는 영어 ‘프라핏’(prophet)은 헬라어 ‘프로페테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것은 ‘프로’라는 접두어에 ‘말하는 자’란 뜻의 ‘페테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예언자란 뜻은 시간적으론 ‘하나님의 시간을 꿰뚫어 보고 말하는 자’이고, 공간적으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란 뜻을 지닌 것이죠. 또한, 히브리어로는 이 예언자를 ‘나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수동적으로 쓰일 때 ‘부름 받은 자’란 뜻을 지니고, 능동적으로는 ‘부르는 자, 선포하는 자’란 뜻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앞날의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자’란 뜻이라기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백성들 앞에서 그분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샤와 아모스가 바로 그런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아마샤와 같은 제도권의 예언자들은 성전의 제사장 출신이나 선지학교 출신이었던 반면에, 아모스는 양을 치고 뽕잎을 가꾸던 하층민 출신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의 예언이 정 반대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한 사람은 참 예언자였고, 또 한 사람은 거짓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차이는 먼저 ‘무엇에 붙들려 있는 자가 참된 예언자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체제의 변화를 원치 않던 기득권과 여론의 편에서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서슬 퍼런 공권력과 왕의 권위, 제도 교회의 권위가 무섭고 부담스러웠지만,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앞에 서고 있습니다.

이들의 또 다른 차이점은 ‘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선포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아마샤는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이기에 잘 될 것이란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계약 백성의 의무와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계약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세속적 성공과 축복을 강조하고 있다면, 아모스는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출애굽의 하나님이 민족을 지키실 것을 선포하고 있지만, 아모스는 출애굽의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실 수도 있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세속 정권이 하나님이 세워 주신 것이기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세상의 권력과 법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하는 아마샤는 사람이 원하는 선포, 권력이 원하는 선포에 치중했지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장과 눈으로 세상을 보고 느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남북의 반목과 북미의 첨예한 갈등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예언자의 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눈을, 세상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심장을 지니고, 세상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된 예언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예언이 난무하는, 가짜 뉴스가 지배하는 세상의 한 가운데서 예언자의 눈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꿰뚫어 보게 하시고, 세상의 한 가운데서 담대히 심판과 회복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20 일  
3 월 28 일(목)



성경말씀

사무엘하 2 장 26-28 절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삼하 26:26)

“우리가 언제까지 싸워야 합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이후 양쪽의 아브넬과 요압 장군이 전투를 벌입니다. 양쪽을 대표해 거렸던 젊은이들은 모두 함께 쓰러져 죽습니다. 이후 싸움은 치열하게 번져 나갔고 결국 요압이 아브넬의 군대에 승리를 거둡니다. 아브넬은 도망치고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뒤를 추격합니다. 아브넬은 그만 뒤쫓고 돌아가라고 타이르지만 아사헬은 추격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이에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이게 되고 이번에는 요압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날이 저물 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26) 아브넬의 말에 공감한 요압은 나팔을 불어 모든 군인을 멈추게 하고 끝날 것 같지 않던 싸움은 그제서야 끝이 납니다.

이 상황은 마치 70년 가까이 남과 북으로 대립하고 있는 우리 조국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아브넬의 말은 그런 우리 조국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가옵니다. 한국전쟁을 통해서 남과 북은 상상할 수 없는 인명 피해와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후에도 분단된 상황 때문에 젊은이들은 군대에 가야 했고 막대한 세금을 군비에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종전 협상에 대해 오고 가는 말들은 우리가 잠시 전쟁을 쉬고 있던 상태였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무뎠어 있었을 뿐이지 남과 북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휴전 중에도 크고 작은 부딪힘들이 있었고 안타까운 생명들이 쓰러져 간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는 걸까요? 이런 싸움이 남과 북에서 서로 피해를 입히고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정말로 모르는 걸까요? 누군가는 먼저 싸움을 멈추자고 제안을 해야 하고, 평화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싸움 안에서는 자신이 살기 위해 상대를 죽여야 하는 야만이 서로를 몰아갈 뿐입니다. 우선 싸움을 멈춰야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 보입니다.

주님, 이 오래된 싸움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싸우는 것은 모두가 함께 망하는 길일 뿐입니다. 싸움을 멈추고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을 찾도록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십시오.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평화의 나팔을 불게 하십시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 싸움이 아 화해를 선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21 일  
3 월 29 일(금)



성경말씀

에스겔 47 장 1 절 - 12 절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 나오기 때문이다.”(겔 47:12)

“성전에서 흐르는 물길”



오늘을 위한 기도

이 땅에 세우신 교회에서 평화와 정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 힘차게 흐르게 하소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성소로부터 흐르는 끊임없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하소서.

오랜 포로 생활로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하늘로부터 온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전에도 몇번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이번에는 그리도 그리워하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성전에는 곳곳에 종려나무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겔 41: 18,20,25,26) 혼탁하던 시절 사사 드보라가 그 아래에서 백성들을 정의롭게 다스렸다는 그 나무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흔들던 그 나무가지입니다.

사라진 평화, 무너진 정의의 세상에서 백성들은 골짜기 한 가득 마른 뼈가 되어 갑니다. (겔 37: 1) 성령의 숨 없이는 살아 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성전 동쪽 문에서 물이 흘러 나옵니다. 그 물은 자연스럽게 동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아서 서로 다투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 만물을 이롭게 한다는 지혜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도덕경 8 장)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 1,000 자를 따라가 그 깊이를 재어 보니 발목까지 올라옵니다. 500m 정도 되는 물길이 고작 발목 깊이인 것입니다. 다시 500m 를 가면 무릎에 이르고 2km 를 따라 걸어야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물은 강이 됩니다.

종려나무 그려진 벽 사이로 시작된 평화와 정의의 물결은 작고 소리 없는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디다. 물길이 바위를 만나면 당황하지 않고 유유히 돌아 새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더 낮은 땅을 만나면 그곳 채우고 다시 전진하였겠지요. 결국 작은 개울은 큰 강을 이루고 그 강변에 자라난 나무 열매들이 만국을 치유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회복하고 평화의 정의를 이루는 일에도 여러 바위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생각보다 더 멀리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소에서 발원한 물길 (겔 47:12) 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낮은 곳으로 함께 흐르지 않으시렵니까?

22 일  
3 월 30 일(토)



성경말씀

에베소서 2:16-17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소서”



오늘을 위한 기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때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오늘 한반도의 남과 북을 가르는 38 선과 같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가르는 담벼락이 존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짐승을 잡고 예식을 행하던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그 밖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이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제사를 드리던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바로 그 밖에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경계를 가르는 약 세 규빗(약 135cm)높이의 담이 있었습니다. 이 담벼락에는 로마어와 헬라어로 이방인이 이 담을 넘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명을 쓴 것 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법을 어겨 모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많은 이들이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바울 자신 뿐 아니라, 에베소의 많은 이들이 그곳에 가면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 온지 얼마 되지않아 그가 에베소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바울은 모진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가르는 담벼락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주후 29년에 이 담벼락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허물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담이 허물어진 것은 주후 70년 로마의 장군 Titus 에 의해서였습니다. 즉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의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을 향한 선포였습니다. 서로를 가르고 나누던 담벼락을 허물기 위한 소망을 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포 이후에도 그 담벼락이 무너지기 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70년간 남과 북을 가르는 “38선”이 있습니다. 남과 북, 해외의 많은 이들이 이 담을 허물기 위해 노력했지만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보았듯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님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의 선포는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소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염원이 모여 결국에는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 지리라 확신합니다.

주님! 바울은 그 선포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화해와 평화의 소망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우리에게도 한반도를 위한 화해와 평화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소서. 결코 쉽지 않지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한발 한발 내딛어 결국 우리 조국에도 통일의 꽃이 한아름 피게 하소서. 아멘.

23 일  
4 월 1 일(월)



성경말씀

누가복음 13:5-9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엿다 하시니라”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오늘을 위한 기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지중해 농사에 관한 설명에 따르면 무화과는 생명력이 강해서 어디에서나 잘 자라고 열매도 많이 맺는 나무라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기름진 밭에 심고 관리인들이 매일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기름진 포도밭에 아무데나 자라는 무화과 나무를 심다니...여기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뜻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앞에(눅 13:1~5)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열여덟 명의 노동자가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은 것은 그들의 더 많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아무런 사고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으니 이것은 자기들이 의롭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라고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며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말합니다. 즉 남의 불행은 그들의 죄 때문이며 내가 무사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남과 북의 관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합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유래가 없는 UN의 북한 제재와 같은 역사적, 국제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북에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받는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유한 남쪽에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를 더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 없다고 판단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매 맺고, 결실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은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포도밭에서 땅만 차지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는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만일에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해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때 찍어버려도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며 주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도원지기의 말에 곧 예수님께서 전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기회가 1 년 더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기회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난 70 여년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이 많았음에도 아직도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최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여 평화와 통일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4 일  
4 월 2 일(화)



성경말씀

느헤미야 1 장 1-11 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핍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느 1:4-5).

“민족을 생각하는 절절함”



오늘을 위한 기도

느헤미야가 읍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할아버지 때,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나라를 빼앗긴 채, 포로로 끌려온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민 3 세였습니다. 우리처럼 미국에 살면서 이민 3 세대쯤 되면, 한국말을 잘하는 3 세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말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서 어깨 너머로 배운 것들이 고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만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울며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기 백성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는 소식에 느헤미야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준 사람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금식 기도를 시작할 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몸을 부들부들 떨며 황폐한 예루살렘 성과 그 성에서 고생하고 고통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호화로운 궁궐에서 편안히 지내면서, 하루하루 그냥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금식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민족, 동포들을 사랑하는 그 가슴 절절한 마음 때문에 그는 너무나 아팠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추운데서 떨고 있는 수 백명의 고통의 무게가 내가 누워 있는 침대의 이불보다 무겁지 않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한다 할찌라도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작은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남의 큰 고통보다 내 작은 기쁨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 기도의 대상과 범위가 얼마나 작아졌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허리가 잘린 채 분열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 버린 분단된 조국을 가슴 절절하게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하루, 느헤미야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단된 조국이 아픔으로 다가와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애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나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두고 온 분단된 조국의 현실, 그 참담한 사연들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25 일  
4 월 3 일(수)



성경말씀

시편 133 편 1-3 절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시 133:1)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을 위한 기도

시인처럼 우리도 그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사모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깨닫고 연합의 삶에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이산가족상봉하는 모습은 언제 봐도 찡찡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형제들이 짧은 시간 감격의 만남을 가집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행복한 시간도 잠시, 곧 헤어져야 합니다. 그것도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손에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짙게 베어 있습니다. 한 평생을 헤어져 살다가 만났는데 그렇게 속절없이 다시 이별입니다. 가족인데, 함께 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갈라놓은 걸까?” 시인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에서와 야콥은 큰아들의 권리를 두고 싸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남의 나라에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현실에서도 형제간, 가족간의 불화는 뉴스거리도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에 눈을 뜨면 피는 섞이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누르고 지배합니다. 한쪽에서는 굶주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테러 같은 치명적인 고통을 안기기도 합니다. 남과 북은 분명히 형제인데 함께 어울려서 살지 못했습니다. 남처럼, 적처럼 생각하며 오래 살았습니다. 이제는 형제인지도 잘 모릅니다.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을 아름답고 즐겁다고 감탄한 시인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처럼,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리는 것처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일이 아름답다고 합니다(2 절). 기름이 온 몸을 적시고 이슬이 산들을 뒤덮는 생명의 충만한 장면을 시인은 상상하는 겁니다. 남과 북이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일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계산만 할 것이 아닙니다. 시적인 상상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공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분의 세상을 꿈꿔 보는 것입니다. 시인이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복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3 절).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식구들, 이웃들, 북의 형제자매들, 세계의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를 힘쓸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복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6 일  
4 월 4 일(목)



성경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 - 19절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사 9:  
17)

“가거라, 고쳐주어라, 다시  
형제가 되어라”



오늘을 위한 기도

다마스쿠스 ‘곧은 길’의 한 여관 방문을 잡고 있는 아나니아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방안에는 그 유명한 사울이 누워 있습니다. 스테반의 죽음에 책임이 큰 자. 그는 이번에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이 도시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셨지요. 그의 눈을 갑자기 멀게 하셨으니 말입니다.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물러갔다(시편 6편 10절)고 찬양이라도 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환상이 아나니아에게 내렸습니다. “사울을 찾아라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고쳐주어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물었지요. “하나님, 그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는지 아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단호합니다. “가거라 나에게 뜻이 있다...”

위대한 바울의 사역은 아나니아의 화해 사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기자는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원한과 복수로 지속되는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주님은 제자가 필요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어려운 부탁을 들어 줄 사람은 제자 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의 크기로는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부탁이기에 아나니아는 자기의 여관방 문을 엽니다. 앞 못보고 밥도 먹지 못하는 사울을 보며 긍휼의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의 첫 마디가 놀랍습니다. ‘형제여...’

원수로 지내던 두 자녀가 형제임을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남과 북에도 오래된 원한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몹쓸 짓을 하며 지낸 세월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제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제자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믿으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가거라, 고쳐주어라, 다시 형제가 되어라.

사랑과 화해의 영을 허락하소서. 자매와 형제가 화해하여 다시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환상이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소서. 단힌 방문을 만나 서로 안수하며 위로하게 하소서.

27 일  
4 월 5 일(금)



성경말씀

이사야 61:1-2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새번역)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만듭시다.”



오늘을 위한 기도

주님! 한반도의 통일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통일을 향한 많은 외침과 만남이 있었지만 한 낮의 구름같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평화와 통일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아침 묵상은 야구 이야기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야구팀 팬이신가요?” 혹여 야구팬이 아니고 야구 룰은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도시에 연고를 둔 야구팀 이름은 아실 것입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내셔널리그 챔피언과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이 붙는 월드시리즈에 온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야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투수의 공 하나에, 타자의 안타 하나에 기뻐하기도 하고, 한 숨을 쉬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은 공 하나로 전 세계의 야구 팬들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를 보기 위해 새벽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Bottom of the ninth, down by three, bases loaded, two outs full count. No fear!” 번역하면 “9 회말, 석 점 뒤지지만, 투 아웃 주자는 만루, 2 스트라이크 3 볼 풀 카운트, 그러나 두려워 하지 말라”입니다. 즉 지금은 9 회말 2 아웃, 석 점 차로 뒤지고 있지만 홈런 한방이면 순식간에 역전 할 기회가 있으니 좌절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야구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럴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었습니.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좌절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들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사람들에게 석방”을 주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겠다고 이야기 하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었지만 구세주가 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과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70년간의 분단으로 너무 많은 것이 변했고, 통일을 위한 많은 시도와 만남이 있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통일에 대한 생각의 다름이 남남갈등이 되었습니다. 90년 독일과 예멘의 통일 이후, 한반도는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9 회말, 투 아웃, 풀 카운트”같이 한반도의 통일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희망이 없는 절망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주셨던 것처럼, 이 한반도에도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만들기 위한 통일의 희망을 발견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8 일  
4 월 6 일(토)



성경말씀

요한복음 5 장 1-9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요 5:8-9)

“베데스다의 법칙 VS 예수님의 법칙”



오늘을 위한 기도

사랑의 주님, 때론 내가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도태된 실패한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끊임없이 낮고 천한 자를 위해 다가오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법칙에, 우리를 규정하는 분열의 시스템에 압도당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세상을 새롭게 보고, 새로운 삶의 중심을 찾는 용기를 갖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38년 병자에게도, 그리고 분단 반세기 지난 한반도의 문제 앞에서도 베데스다의 법칙을 뛰어넘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칙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나누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마도 3-4 월의 부림절이거나 아니면 유월절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여하튼 이런 큰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흠뻑 살던 곳에서 거의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은 한 주간 동안 거대한 축제의 불야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운 잔치 마당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잔치의 그늘에 숨어있는 사람들, 특별히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의 이야기에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의 삶의 법칙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법칙’과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낮고 싶어도 나올 수 없었던 병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연못에 뛰어들기만 하면 낮는데, 이 환자는 연못에 뛰어들 수가 없었죠. 병약한 그를 데려다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더 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연못의 물이 소용돌이칠 때 가장 먼저 딱 한 사람만이 그 연못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베데스다의 법칙입니다. 가장 앞선 사람만이 기회를 누리는 세상의 가혹한 법칙입니다.

그 법칙에 걸려 헤어지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죠. “정말 낮고 싶으냐? 그렇다면,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한 마디로 그 병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먼저 나서는 한 사람만이 선택될 수 있도록 만드는 세상의 시스템을, 세상의 무한경쟁의 그물망을 한순간에 해체해버리고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위의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언제나 중요한 것은 당당한 믿음의 주체로 나아가는 용기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인습적 지혜와 제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인습적 지혜는 어느 사회나 공동체의 물려받은 전통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며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법칙은 바로 이런 세상의 인습적 지혜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뛰어넘는 대안적인 길, 바로 그 전통을 전복시키는 혁명적인 능력을 갖는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법칙에 압도돼, 나 하나 사는 것만으로도 벽차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낮고 싶으냐? 그렇다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담대히 걸어가라!”

29 일  
4 월 8 일(월)



성경말씀

요한복음 3:3-5 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오늘을 위한 기도

하나님 우리는 남북 분단의 세월 동안 휴전선과 이념의 테두리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올해 사순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밤중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두번 태어날 수 있는가 반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3:5).

거듭난다는 말은 니고데모가 생각한 것 처럼 어머니 배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아닙니다. 마음의 어떤 변화나 생활의 어떤 부분적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온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도홍 교수는 [남북통일을 향한 성경적 성찰]에서 남한 사회의 “반공주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 성경을 지극히 강조하던 한국교회가 남북의 문제를 말할 때만 되면 반공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남과 북의 분단 역사 속에는 서로 비방하고 죽이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응어리진 상처가 아직도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또 북에서 표방하고 있는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를 남한의 교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도홍 교수는 “한국교회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이념은 인간 역사의 시대적 산물이며, 구원의 복음은 영원 불변한 진리인 하나님의 계시”라고 규정합니다. 그러기에 주 교수는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남북분단의 문제를 직시하며,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지를 마땅히 생각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위로 부터 오는 생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땅의 이념을 우리의 생명인 것 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과 배척의 '반공주의'에서 벗어나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화주의자(peace maker)로 거듭나는 사순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0 일  
4 월 9 일(화)



성경말씀

출애굽기 13 장 10-14 절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출 13:12)

“정신의 출애굽”



오늘을 위한 기도

열 번의 재앙 끝에 마침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하지만 바로는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해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 마음을 바꿔서 군대를 이끌고 추격에 나섭니다. 바로의 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도망친 노예들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렇게 죽게 만들었냐고 불평합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섬기던 이전의 삶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몸은 비록 이집트를 떠나왔지만 정신은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출애굽은 탄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과거를 잊고 지도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정신의 출애굽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스스로 근대화를 이룰 기회를 놓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민족끼리 두 편으로 갈려서 전쟁을 치루고 분단이 되어 65 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치열하게 사느라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족정신을 세우는 일에 소홀히 했습니다. 흥해를 앞에 두고 대립하고 있는 바로와 이스라엘의 모습이 21 세기 한반도의 상황이 겹쳐지는 것은 과도한 상상일까요? 강대국들은 여전히 우리 민족의 운명을 움켜쥐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는 힘이 없는 약소국임을 확인할 뿐입니다. 우리는 분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때로 경제적인 이득을 따져 분단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굳은 생각들일지도 모릅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지금 이대로가 좋다면 안주하려는 마음, 외부의 힘에 의존하려는 마음, 냉전적이고 호전적인 생각들 말입니다. 모세는 이런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 보기만 하십시오.”(13)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면서 그분의 섭리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주님, 우리 민족에게 정신의 출애굽을 허락하십시오.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굳은 생각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십시오. 아멘.

31 일  
4 월 10 일(수)



성경말씀

다니엘 9장 1 절 - 5 절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단 9: 3)

“다니엘의 기도”



오늘을 위한 기도

다니엘은 이제 좀 살만 합니다. 탁월한 용모나 능력 뿐 아니라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인성과 도덕성까지 검증을 받았으니 초강대국 바벨로에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습니다. 다니엘 6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그런데 이 잘 사는 다니엘이 베옷을 입은 채 재 위에 앉아 있습니다. 점령국에서 ‘바벨론 드림’을 이루었지만, 이 젊은이의 마음은 자기 민족에 대한 아픔과 한숨으로 가득합니다. 나만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우는 것(로마서 12 장 15 절)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는 이러합니다. “위대하시고 두려워진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하늘 뜻을 잊고 살았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고 반역하며 평화의 명령을 떠나 살았습니다.” 기도는 16 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루살렘과 당신의 사람들이 주변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 주소서. 눈을 크게 뜨시고 황폐해진 건물과 도성의 고통을 굽어 보소서. 지체 마시고,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내려 주십시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사자굴에서 살아남고 풀무불에서 걸어 나왔다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이 기도에 키를 기울였나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사무엘상 16 장 7) 이라면, 주께서 다니엘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의 성공이 아니라 그의 눈물과 기도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의 몸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만 풍요롭고 잘나간다고 좋아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민족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참여하는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에스더 4 장 14 절).

우리에게 다니엘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높아지고 커지는 것에만 관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이웃과 민족을 위해 눈물 흘리며 재 위에 앉게 하소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당신께 더운 추숫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32 일  
4월 11일(목)



성경말씀

로마서 12:17-18, 21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다”



오늘을 위한 기도

주님! 이제라도 우리가 돌이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하나님의 가르침 대로 이 한반도에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평화의 한반도를 선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어둠은 어둠을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0년대 흑인 인권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버스나 공원, 그리고 화장실 같은 공공장소에 백인과 흑인 전용칸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흑백분리 정책에 항거하던 많은 흑인 인권 운동가들이 인종주의자들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러한 무차별적인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비폭력의 원칙아래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어 마침내 1965년 투표권과 참정권을 포함하여 미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하였습니다.

그들은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그들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의 실천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이에게 당한 아픔과 고통을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개인의 삶 뿐 아니라, 국가와 국가간의 국제 정세의 측면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 보입니다.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아래 군비 경쟁에 나서 항공모함을 만들고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비 경쟁이 평화를 가져온 것이 아닌 서로 간의 긴장을 증가시켰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아래 온 세계의 시민들은 전쟁의 일촉즉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으니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의 국방력이 얼마가 되니 우리도 그 만큼의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70년간 남북의 군비 경쟁의 결과는 평화가 아닌 전쟁의 긴장 증가만을 낳았습니다. 이제라도 돌이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고 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위해 크리스천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33 일  
4월 12일(금)



성경말씀

에스겔 37:15-23

“여호와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손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겔 37:15-17)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오늘을 위한 기도

지난 70 여년 동안 허리가 갈라진 채 메마른 뼈와 같이 살았던 우리 민족을 기억하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저희에게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도 이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유대 민족도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우리는 1945 년, 유대 민족은 BC 932 년에 분단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분단된 유대민족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시겠다고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막대기를 구해 한쪽에는 북왕국의 국호인 이스라엘이라 쓰고, 다른 한 막대기에는 남왕국의 국호인 유다라 써서 그 둘을 붙여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반도에 적용하면 한 막대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쓰고, 한 막대기에는 대한민국이라 써서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군사분계선으로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38 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것은 소련과 미국의 한반도 분할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1945 년 8 월 11 일, 국무차관보 제임스 던(J. Dunn)의 지시를 받은 미 육군부 작전국의 본스틸(Charles H. Bonesteel, 이후 주한미군사령관 역임) 대령과 미 육군장관 보좌관이었던 딘 러스크 (Dean Rusk, 이후 케네디와 존슨 정부에서 국무장관 역임) 중령은 작전국에 걸려 있던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의 벽걸이 지도에 38 선을 그어봅니다. 이후 38 선 분할 점령안은 미국 합참과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일반 명령 제 1 호'로 맥아더 사령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38 선 분할 점령안을 미국이 제안하자 소련은 별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위키백과 참조)

남과 북이 분단된 과정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말씀 중에 17 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말씀을 주목하여 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통일의 도구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반도의 남과 북은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가능합니다. 다만 또다시 우리 주변 강대국들의 손이 아닌 '네 손에서 둘이 하나되리라'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반도 평화와 남과 북이 하나되는 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4 일  
4 월 13 일(토)



성경말씀

창세기 33 장 1-4

요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창 33: 4)

“두려움을 넘어서서”



오늘을 위한 기도

주님! 서로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화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2 장에서의 야곱의 심리상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20 년의 긴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 한명의 아들과 두 아내,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계산이 빨랐고, 절대 손해를 보는 법이 없던, 주도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압복강을 건너기 전에 사람을 보내어 상황을 알아보게 했는데, 형이 400 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전갈을 받습니다. 분노에 가득차서 자기를 죽이겠다는 형 에서의 모습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고향 쪽으로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 형 에서는 그렇게 몸을 얼어붙게 할 만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잔피를 부립니다. 자신이 평생토록 약착같이 모았던 재산의 거의 3 분지 2 를 먼저 에서에게 보냅니다. 일종의 뇌물 공세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가족들을 보냅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겨지자 극심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으로 어찌할바를 모르던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압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생사를 건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어이 얻어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 축복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름은 정체성(Identity)을 상징합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명명하였는데,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평생을 자기의 것을 움켜쥐기 위하여 싸워왔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차하면 도망갈 궁리부터 했던 야곱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압복 강을 건너가 에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을 따라다녔던 두려움의 존재,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남과 북이 오랜 시간동안 서로 갈라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사실은 잘 모르면서도 통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단에서 통일을 위한 비용들이 천문학적으로 든다는 말도 있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문화적인 이질감 또한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실체를 다시 보게 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에서와 야곱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며 화해하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막연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남한과 북한이 한 형제됨을 확인하면서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35 일  
4 월 15 일(월)



성경말씀

마가복음 14 장 32 절 - 38 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마 14:36)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오늘을 위한 기도

이 두 문장이 성경의 한 절에 들어있다니요. 이 잔을 옮겨달라는 첫번째 간구와,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라는 두번째 간구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면의 갈등이 얼마나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바다처럼 먼 이 두 고백을 한 입술에 담기 위해 예수님은 성찬을 나누시고 (22 절), 찬양으로 마음을 채운 후(26 절) 땅에 엎드려 기도(35 절) 하셨습니다. 위대한 예수의 영혼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기도인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라는 말 말입니다. 주님의 여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라 고백한 처녀 마리아는 행복한 가정을 포기할 만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바로에게 보내진 모세는 거대 권력과 맞서 싸우는 임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위대한 영혼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고, 그 일로 여러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 뜻대로만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상대를 정복하고 위협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슬이 되기 보다는 겁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처럼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것인데, 선과 악을 심판하는 그 권력을 내가 가지려 합니다. 오늘도 그 에덴의 열매에 손을 뻗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도록 깨어 기도하라(38 절) 는 이유를 알 듯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소원만 가득한 첫번째 문장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두번째 문장으로 마음이 나아가지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로마서 8 장 6 절은 하나님께서 품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하늘에서 성취된 생명과 평화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무관심하게 살아가거나, 정복하고 제압하려는 마음의 유혹을 이겨내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생명과 평화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소서. 기도가운데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용기를 허락하소서. 아멘

36 일  
4월 16일(화)



성경말씀

창세기 1:26-27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새번역)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늘을 위한 기도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차별과 혐오, 전쟁과 분단의 모습이 너무도 가득합니다. 이제라도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창조, 생명, 평화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삶 속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로 “첼렘(צֶלֶם)” 과 “테무트(תְּמוּנָה)”가 사용됩니다. 첼렘(צֶלֶם)은 사람 혹은 동물의 모양에 따라 조각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인 ‘자르다’라는 동사에 유래되었으며, “테무트(תְּמוּנָה)”는 ‘닮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어 ‘비슷한 모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조각되어졌으며 하나님과 비슷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선하게 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는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망각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였던 가인은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선하게 창조했지만, 인류는 욕심과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그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창조, 생명, 평화가 아닌, 내전과 다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차별과 혐오의 모습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조국인 한반도 또한 전쟁의 공포와 분단의 상처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창조, 생명, 평화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인류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창조, 생명, 평화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시기와 질투, 그리고 차별과 혐오의 모습이 있습니까? 사순절의 마지막인 고난 주간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7 일  
4 월 17 일(수)



성경말씀

로마서 9:11-13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새번역)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오늘을 위한 기도

하나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월의식이나 교만한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오히려 겸손하고 오히려 빛진 자의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위에 올바른 역사 의식으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9 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시는 특징을 설명합니다.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듭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장자권을 주어야 한다면 에서가 선택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속권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나 육체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음의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즉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라면 바로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강압하게 만드신 것이니 어찌 잘못했다고 책망할 수 있습니까?(19-21 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 바울은 인간의 주제 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인 인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바울이 강조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남북 통일을 생각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신학적-신앙적 가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남쪽 교회에서는 '남한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으로, '북한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에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북한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믿음을 저버림으로써 가난하며 남한은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 부유해졌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사도바울께서 가르치신대로 하나님의 주권이란 개념에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이미 보았듯이 야곱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지라도 그것은 그가 에서보다 의롭거나 나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기독교인들은 남한이 북한에 대해 결코 우월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견뎌온 북의 동포들의 짐을 나눠지고, 사랑에 빛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제대로 새길 줄 아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따라 화해와 용서의 마음 그리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38 일  
4월 18일(목)



성경말씀

고린도후서 5:18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화해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선하게 만드셨지만, 인간은 점차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Imago Dei)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지나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이 맡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화해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용어로서의 ‘화해’는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하는 행위”입니다. 즉 화해하는 직분은 바로 싸움이 있거나 분쟁이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서로의 감정 또는 분쟁을 풀 수 있도록 양보하게 하고 그 싸움과 분쟁을 끝내는 직분입니다. 어떤 싸움과 분쟁을 모른 척 하고 아무일 없다는 듯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한국교회사를 가르쳤던 서정민 교수가 첫 수업시간에 했던 말을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또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인류의 역사가 잘못 돌아가고 있을 때, 그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이 땅의 역사를 직시하고, 그 역사 속에서 있는 아픔과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 봄, 아직도 우리의 조국은 분단이라는 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의 분단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 원수가 되어 갈등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되게 하며, 분단으로 갈라진 한반도의 역사를 하나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화해의 직분자로 부름 받은 이가 바로 우리입니다. 화해의 직분 맡은 자로서, 오늘 아침 분단된 조국의 화해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 이 땅의 화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이 맡겨졌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싸움과 분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으로 인한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화해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 일  
4 월 19 일(금)



성경말씀

디모데 후서 4장 1-8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딤후 4:7-8)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



오늘을 위한 기도

주님. 아무리 거대한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중국 북산에 우공(愚公: 어리석은 노인)이라는 90 살 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집 앞과 뒤를 큰 두개의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생활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가족들에게 “우리 가족이 힘을 합쳐서 저 두 산을 옮겼으면 한다. 그러면 길이 넓어져서 다니기에 편할 것이다.” 다음날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손자와 함께 지게에 흙을 쳐다가 바다에 내다버리면서 꼬박 1 년이 지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웃들이 ‘얼마 멀지 않아 죽을 사람이 어찌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느냐’고 비웃자 ‘내가 죽으면 내 아들, 그가 죽으면 손자가 계속 할 것이요. 그동안 산은 깎여 나가겠지만 더 높아지지는 않을 테니 언젠가는 길이 날 것이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미신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러자 두 산을 지키던 산신령들이 노인의 말을 듣고 큰일났다고 여겨 즉시 옥황상제에게 달려가서 산을 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상제는 두 산을 멀리 옮겨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우공이산(愚公移山)입니다. 아무리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다보면 좋은 결과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우공이산의 정신을 성경의 덕목으로 바꾸자면 신실함(충성, Faithfulness)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누리게 될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의 인생은 세속적인 성공이 보장되는 순탄한 길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되는 사명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눈부신 선교의 열매를 맺기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허망하게 도시를 떠나기도 했고, 적대자들에게 쫓기다 붙잡혀 매를 맞고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순교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한 눈 팔지 않고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기대했던 북미 회담이 어이없게 결렬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허탈했습니다. 사실 남북의 분단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남한 보다는 미국의 의지와 결정이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강대국들의 입장과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 거대한 벽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진정한 통일은 정치적인 셈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단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화해와 평화의 사역을 묵묵히, 그러나 치열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야 할 길을 걷는 것이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40 일  
4 월 20 일(토)



성경말씀

골로새서 3:15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새번역)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기는 로마가 정치적으로 위세를 떨치던 시대였습니다. 즉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대,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Pax Romana)의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에 의한 평화”는 로마의 지배 계급에게는 태평성대의 시기였지만, 로마제국에 의해 지배를 받던 식민지 민중들에게는 로마의 평화유지를 위한 로마의 폭력과 착취로 고통받는 제국주의 체제였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소수 로마의 지배계급만을 위한 가짜 평화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힘의 논리였고 그들의 평화를 위해 다른 이들을 억압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러한 로마의 가짜 평화에 반대하여 “팍스 크리스티”(Pax Christi - “그리스도의 평화”)를 외쳤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골로새서 3:15 의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εἰρήνη τοῦ χριστοῦ(에이레네 투 크리스투)”가 라틴어 “팍스 크리스티”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한 나라의 평화를 위해 다른 나라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가짜의 평화가 아니라 이사야 11:6-8 절에서 묘사되어 있는 모든 이들이 누리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2000 년이 지났지만 오늘날의 세계 또한 강대국이 가진 힘의 논리로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한반도도 군비 증강과 핵 보유라는 힘의 논리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일 수 없습니다. 바울이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팍스 로마나”가 아닌 “에이레네 투 크리스투”를 의지해 진정한 평화를 갖기를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이 이 땅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라지와 사자 새끼가 함께 먹으며 어린 아이들이 그것들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젓먹이가 독사 곁에서 놀며 어린 아이들이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이사야 11:6-8)



오늘을 위한 기도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힘의 논리에 의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